직원이 행복한 일터,

국민 웃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직원 보건관리 중장기 사업 컨설팅

글 기시윤 **사진** 김지원

국민건강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연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제돼야 하는 것이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관리실은 임직원을, 국민을 위한 안전보건체계를 빈틈없이 만드는 중이다.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던 안전관리실

코로나19 팬데믹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관리실은 'K-방역' 중심에 있었다. 당시 안전관리실은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해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중증환자 병상 확충,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등 정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완성해갔다.

"당시 안전관리실 내 위기대응부, 방역지원부를 신설해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은 유례없는 상황과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는데요. 그 피로를 물리치고 코로나19 최일선에 설 수 있었던 까닭은 '국민건강 최우선'이라는 공단의 소임 때문이었을 겁니다." 안전관리실 김형식 실장은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사명감이 안전관리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이끌었다고 말한다.

"하루하루가 비상이었죠.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치료센터나 임시 생활시설을 긴급히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팀워크 및 신속성이 관건이었습니다. 계약에서부터 운영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이틀 안에 끝내야 하는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그 와중에도 직접 시설을 방문해 안전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감염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일도 당시의 주요 임무. 공단 안팎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난 3여 년을 보낸 셈이다. 그 결과 일상 회복이 우리 국민에 찾아왔고, 안전관리실 또한 숨을 가다듬으며 내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다시 찾은 일상, 임직원 건강에 집중할 때

안전관리실은 안전관리부·보건관리부·방역지원부·비상계획부, 총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 회복 이후 위기대응부가 보건관리부로 개편·신설되었으며, 보건관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임직원의 건강장해예방 및 건강증진활동을 기획·수립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전관리실 구성원들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전 임직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 국민건강보호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임직원들의 건강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공단이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보건관리부 변정원 부장은 보건관리 계획을 설정하고 수립하는 데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협회의 컨설팅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보건관리 중장기 기본방향 및 단계적 실행과제뿐 아니라 정부의 자기규율예방체계로의 구축 전개에 따른 공단 내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통합 운영이 제시됐다. 또한 보건관계법령준수, 유해요인관리, 보건관리역량강화, 자기규율보건관리 등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됐으며, 세부 추진 과제를 토대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이다. 공단은 당장 본사 및 전 지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및 밀폐공간의 유해위험요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임직원 마음건강검진 진단과 심리치료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조금도 빈틈없이, 전방위적 안전보건체계를 위해

민원응대와 행정업무 등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는 안전관리실이 유독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1만6,000여 명의 직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 출장 등 다양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직원의 감정손상 등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과 치료지원은 직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건관리부는 그 일환 중 하나로 '직장 내 동료 상담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전국 178개 지사마다 상담사를 양성해, 상담사로 하여금 일터 내 정서적 위험징후를 감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김형식 실장은 "예방중심의 보건관리체계 기틀을 확고히 해 직원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내비친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발효까지 안전관리실은 이 모든 이슈에 민첩히 대응하며 그 어떤 곳보다 탄탄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왔다. 2021년 안전보건 분야의 국제인증인 ISO 45001 취득은 안전관리실의 지난 행보를 가늠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안전관리부·보건관리부·방역지원부·비상계획부의 직제에서만도 안전관리실의 역량과 막중한 책임을 엿볼 수 있을 터.

"항상 경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피곤하고 지칠 때도 많지만 저희가 바삐 움직여야 임직원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관리실 김형식 실장은 조금도 빈틈없이, 전방위적 안전보건체계를 위해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직원이 건강한 일터, 국민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이 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다짐이다.

Mini Interview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관리실 김형식 실장

Q. 안전관리실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전관리실은 안전관리부·보건관리부·방역지원부·비상계획부 총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경영시스템 운영, 안전보건 활동, 청사 방호 및 비상 대비 업무 등이 안전관리실의 주요 업무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정부 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국민 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안전관리실의 포부를 들려주세요.

A. 임직원 보건관리 중장기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임직원이 건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안전보건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대내외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예정인데요. 국민 건강증진과 연계한 사업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최우선'이라는 공단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